김수로왕 · 허황옥 인연 잇는 인도유물전

김해시 '초이 김양식 관장 기증유물특별전' 가야테마파크 인도관 6월 19일부터 상설

김양식 관장 무상기증한 인도유물 전시
간다라 관음보살좌상 등 300여 점 선봬
2000년 전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인연이
오늘의 김해시와 인도 간의 문화 교류로



관음보살좌상, 1~4세기경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터번을 쓰고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을 들고 있는 형태는 주로 전성기에서 벗어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에서 확인된다.



가네샤, 시바와 빠르봐띠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장애물을 제거하여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된다. 형상은 인간의 모습에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인도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해시가 6월 19일 김해시 가야테마파크에서 '초이 김양식 관장 기증유물특별전 - 김해로 다가온 인도를 만나다' 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2021년 5월 김해시와 인도박물관이 체결한 유물 무상기증 협약에 의해 마련됐다.

인도박물관 초이 김양식 관장은 협약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인도유물 1194점을 김해시에 무상기증했다. 김해시는 이관 직후 유물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훈증처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으며 이번 특별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증 유물은 가야테마파크 내 인도관, 뉴델리관, 아요디아관, 수장시설 등에 보관 중이며 인도의 대표적 건물인 타지마할을 모티브로 한 인도관을 특별전의 주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인도관에서는 간다라 관음보살좌상, 와불상 등 169점의 유물을 △1부 '차가운 금속에 화려함을 불어 넣다' △ 2부 '신과의 공존을 조각하다' △3부 '씨실과 날실 위에 삶을 그리다' △4부 '일상을 담아 삶을 꾸리다' △5부 '선율에 맞춰 삶을 노래하다' △6부 '신화적 상상력을 얼굴로 표현하다'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뉴델리관, 아요디아관에는 생활장식품, 건축,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각각 71점, 56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이 김해시에 인도유물을 기증하게 된 것은 김해시와 인도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서울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의 문화나눔 정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에 의하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허황옥이 혼인을 하면서 김해 김씨와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많은 자손과 후손들이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인연으로 옛 가락국 땅이었던 김해시는 인도 아요디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김해시가 허황옥의 고향인 인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외특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양식 관장은 인사말에서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집되어진 유물이지만 모든 김해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김해시와 인도의 깊은 역사적 우의와 교류를 통한 인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두 나라의 돈독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도유물이 서울 인도박물관에서 김해시로 오게 된 인연은 2017년 12월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양식 관장이 김해초이 인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김양식 관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40여 년간 모은 유물 등 2500여 점을 김해시에 기증할 뜻을 밝혔다. 업무협약 당시 인도박물관측은 "2000년 전 인도와 사돈지간이 된 김해에 인도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취지에 맞을 것 같다"며 "박물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허성곤 시장은 "김해에 국내 유일한 인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큰 성과"라며 "인도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시는 김양식 관장으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을 보존 · 전시할 수 있는 인도전문박물관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불암동에 허황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기증자인 김양식 관장은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평생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문화 예술품을 수집했고 2011년 서울에서 인도박물관을 열었다. 김 관장은 한국 · 인도 간 문화교류를 위한 많은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인도정부로부터 문화훈장 파드마 슈리(PADMA SHRI)를 받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상시 운영될 예정으로 김해시와 인도 간의 오랜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보 반가사유상, 인천국제공항서 만난다

국립중앙博, 공항 미디어파워에 영상 상영

국보 반가사유상을 디지털로 구현한 영상이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영된다.〈사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6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중앙 밀레니엄홀 미디어타워에서 한국문화 대표 브랜드인 '국보 반가사유상' 디지털 실감콘텐츠를 상영한다.

영상은 초고용량의 3차원 정밀촬영(3D 스캔) 데이터를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TRIC)의 문화유산 렌더링 기술을 통해 구현했다. 반가사유상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높이 27m에 달하는 초대형 8K 고화질 LED 전광판인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 콘텐츠는 실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디지털화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헤리티지' 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영상의 한계를 넘어 '반가사유상의 미소' 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도와 환경, 재질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디지털 혁신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제작, 전용 영상관에 상영하면서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박물관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콘텐츠' 의 인천국제공항 미디어타워 상영을 시작으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실감콘텐츠를 연차적으로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선보일 계획"이라며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콘텐츠는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에게 바쁜 일정 속에 잠깐의 여유를 찾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성료

대상, 정후남 '직지 그대 만나면' 수상
9월 4일 제4회 충청권 대회 개최 예정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가 6월 18일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직지 그대 만나면' 을 낭송한 정후남(강원 화천)이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최향순, △은상에는 윤용호, 박인숙, △동상에는 김재선, 유서연, 남태희, △장려상에는 곽희정, 유민숙, 원현숙, 손옥순, 서현호가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에는 정우, 김난숙, 서문순, 반기자, 고명주, 송상익, 임수빈이 선정됐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이양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와 가르침을 널리 알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가 전국 시낭송 메이저 대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는 9월 4일 직지의 날에 충청권 4개 시 · 도 대상 '제4회 충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와 10월 '제 2회 직지 코리아 청소년 직지 시낭송대회' , '제1회 전국 직지 코리아 청소년 직지시 작품공모' 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